보안스님은?

전국 선방돌며 정진



1921년 경북 영천의 산골에서 태어난 보안스님은 보현보살의 출현 설화가 있는 불연 깊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떠돌기를 좋아했던 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농사를 짓거나 장터에서 엿을 팔기도 하며 지냈다. 특히 스님은 속가에서 살 때 사람들이 가까운 혈육간이라도 제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헐뜯고 속이는 것에 항상 의문점을 갖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전국을 떠돌던 스님은 19살 때 울산의 어느 장터에서 "25살이면 출가할 사람이 왜 떠돌아 다니느냐?"는 어느 보살의 말을 듣게 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후 각처를 떠돌다 일본 징용에서 도망쳐 온 스님은 그때부터는 각 사찰을 다니며 법문을 듣던 중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에 발심, '정직하고 대의를 위해 바르게 사는 길'을 가기 위해 정확히 25살 되던 1946년 표충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봉암사 상원사 해인사 칠불암 도리사 내원사 등 전국의 선방에서 정진했으며 팔공산 꼭대기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기도 했으며 1974년부터 부산 감로사에 주석하고 있다.

리해 왔다. 그것은 출가자가 뜻을 바르게 세우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주은혜 갚지 못하는 큰 도둑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단 한명의 상좌도 두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두 손을 들어 펴보인다.

'손발이 최고 상좌라. 내 손이 빨래도 하고 밥도 먹여주니 그보다 더 좋은 상좌가 있을 수 없지. 법화경 안락행품에 보면 상좌가 하나 생기면 지옥이 하나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나는 내 손발 상좌와 함께 아주 편안한 셈이지."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에 '공부 흉내만 내는 늙은 중 자꾸 건드리면 냄새만 고약하다'는 말씀으로 기자를 내치신 스님은 오후 나절 내내 종적이 묘연했다 스님께서 자주 가신다는 뒷동산에도 올라보고 목련꽃 툭 터져 화사한 도량에서 봄볕을 쬐며 속절없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새들의 지저귐과 대숲에 이는 바람의 청량한 기운이 마음에 그득 찼다.

스님 방 툇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보고 있자니 스님의 팔십 한생애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겁의 세월 가운데서 잘려 나온 찰나같다.

"우리들이 모두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무지'라는 제목으로 스님방 벽에 붙어 있던 붓글씨의 내용을 곱씹고 있자니 보안 스님이 걸망을 지고 저만치서 걸어오신다. 스님을 모시고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뒷동산에 다시 올랐다.

"이렇게 대지에 봄이 와도 사람 마음 따라 그 봄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그릇 따라 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그것 밖에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중은 설법할 것이 없다며 한사코 법문을 마다하시던 스님이 이야기처럼 법문을 시작하신다.

"25살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살림살이를 밝혀나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 한길만을 가는 것이지요. 자주 비유하는 말이지만 공부는 돌보기로 햇빛을 계속 모으면 불이 일어나 종이가 타들어 가듯이 꾸준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불을 지펴야 중생들이 와서 불도 쬐고 그 밝음을 나눌수가 있지요."

불이 일어날 때 까지는 쉬지 않고 부싯돌을 계속 비벼야 불이 일어나듯이 공부하는 것도 하다가 말다가 해선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청하자

"요즘은 좋은 법문이 넘쳐 나지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한시간이라도 수행을 해야 자기 살림이 됩니다. 아무리 도인이 앞에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법문이 좋다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좋은 음식이라고 무턱대고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고 배탈이 나게 되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려고 하지만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통해 있어요. 생각이 날 때 그대로 행하면 일이

> "돋보기로 햇빛 모으면
> 종이가 타들어 가듯
> 공부는 꾸준하고
> 한결같아야 해요"

되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머뭇머뭇하고 따져 생각하면 일이 되지 않아요. 공부도 그와 같아서 처음 마음 일으켰을 때의 마음을 지키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염불을 해도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름에 매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름만 다르지 공덕은 다 똑같아요. 이름에 끄달려서 아미타불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다 하지 말고 일심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얼마 전 50회를 맞이한 갑로사 3천배 참회 기도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도 극락전에서 목탁을 들고 묵묵히 절을 하고 있는 스님을 뵌 적이 있다. 법사로 초빙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많은 불자들 틈에서 절을 하는 80살 노스님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스님의 그러한 행은 어떠한 법문보다 크게 마음을 울렸다. 그 때 얘기를 드렸더니 "힘닿는 대로 절을 했지요.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지금도 그때 다 못한 보충을 하느라 절을 하고 있어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린다.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계율인



만큼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새벽 예불하고 세끼 밥 먹고 야채 가꾸고 연탄불 갈고 잠자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스님만의 규율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여여하다. 범심견불심(凡心見佛心)이라고 일러주시던 스님의 말씀처럼 스님의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비범함이며 그 속에 불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은연중 느낄수 있다.

"이 세상은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유혹도 많고 공부한다고 내세우면 불보살님도 시험을 하시지만 마구니들도 테스트 할려고 덤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숨어 소문없이 한생 공부하고 가는 것이지요. 일생을 딴길로 가지 않고 공부해 왔으니 잘 회향하는 것만 남은 셈인데 내가 몸을 바꾸는 날이 나에게는 섣달 그믐날이니 그날까지는 내 살림살이 잘 마무리 해야죠." 죽어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편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한시도 놓치지 않는 스님의 원력을 눈치채게 한다.

"육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통찰하는 심안을 얻기 위해서는 공(空)도리를 알아야 해요.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버리라는 말이 나오고 육조스님은 일체중생의 허물을 안보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했고 오조스님은 '나'라는 생각, 즉 아소심(我所心)만 없으면 부처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두는 공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이는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다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잊는 것은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하여 의지할 곳 없는데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공이 본래 공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참다운 법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제 평생을 추구해온 마음마저 공한 자리에 놓고 보다 큰 서원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밀행제일의 라훌라 존자처럼 소문없이 공부하여 묵묵히 진리에 계합되는 경지에 도달해 가고 있음이다.

글=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종진스님

종진스님은 대강백이면서 율사이시다. 이 분 문하에서 수학을 한 스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찌나 엄하고 깐깐한지 그 분 앞에서는 저절로 주눅이 든단다. 나는 그 분을 모시고 수학할 기회가 없어서 그 엄함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86년,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스님이시면서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큰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를 하실 때의 일이다.

종진 스님께서는 율원장 겸 총무를 맡으시고 내가 회계 소임을 보게 되었다. 해인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종무회의를 한다. 종무회의는 그날 그날의 업무지시와 결제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종진스님이 총무를 하시면서부터 오전 7시부터 사시마지 법요식 시간까지 종무회의를 하기가 다반사였다. 스님은 지난 하루 동안에 발생한 사중의 대 소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와서 낱낱이 지적하면서 각자의 소임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날마다 듣는 잔소리(?)이다 보니 다들 질려했다. 그런데도 주지스님은 묵묵히 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총무스님께서 이렇듯 사중의 대 소사를 늘 챙기고 살피시는데 다른 소임자들도 각자 소임에 솔선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실 뿐이었다. 당시 우리는 종진스님을 '독일의 게슈타포'라고 불렀다. 또 되도록이면 마

냉정함과 따뜻함 조화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주치지 않으려고 피했다. 한번 마주쳤다 하면 승행(僧行)에서부터 소임의 나태함에 이르기까지 곤욕스러울 정도로 지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습관적인 잔소리가 아니고 사리에 딱 맞으니 임도 뗄 수 없었다.

스님은 한철이 지나고난 후 총무 소임을 그만두고 율원장만 하시게 되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그렇게 속이 편하고 홀가분한 수가 없었다. 날마다 듣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을 며칠째 만끽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사소한 일부터 큰 사고까지 줄을 이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의 큰 모습을 느끼게 되었다.

가끔씩 율원장 스님이 거처하시는 처소에 들르면 늘 가사장삼을 단정히 수하시고 곳곳하게 앉아 경을 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에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다.

"더우실 텐데 가사장삼을 벗고 계시지 그러십니까?" 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행자가 덥거나 춥거나 한결 같아야지요. 더구나 경을 보는데 흐트러진 모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하시며 도리어 인자하게 일깨워 주신다. 소임을 보는 위치에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고 지적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철저한 수행자 만이 가질수 있는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종진스님이라 할 수 있다.

한번은 대구 근방에 볼 일이 있어 종진스님을 비롯한 몇 분의 스님들과 다녀오게 되었다. 점심시간을 놓쳐버려 하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공양을 하게 되었다. 국수 한그릇들 하자고 해서 국수를 시켰더니 국수에는 조갯살을 넣는단다. 율사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모른체 하고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국수와 수제비로 나누어 시켰다. 국수에는 조갯살을 넣고 끓이지만 수제비는 풋호박만 썰어 넣는단다. 그때 누군가가 "역시 조개가 들어간 칼국수라 맛이 일품이구만. 그런데 수제비 맛이야 율사처럼 쫀쫀하지" 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신 종진스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을 받아 "율사가 쫀쫀한게 아니고 수제비가 쫀쫀하구만" 해서 좌중이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율사란 계율 지키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데 사실은 율사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출가수행인은 누구나 사미계와



보살계, 구족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청천벽력 같은 절망감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후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답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계를 의지하여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다. 흔히 계라는 의미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약적인 금계만을 생각하는데, 계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가 있다. 섭율의계는 오계, 십계, 보살계, 구족계 등 행동과 의지를 제약하는 금계이고 섭선법계는 삼귀의, 육바라밀, 팔정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율사의 의미가 금계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출가수행하는 모든 수행자가 율사이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수완스님은 1973년 해인사에서 정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승가학원 재단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 산청 정취암 주지로, 현대불교분학회 회장과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다. 〈마음 빈 하늘〉 〈이내의 끝자리〉 등의 시집을 펴냈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

2001 제5회 광주 · 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모시는 글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속에 매년 갖고 있는 광주 · 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에 초대합니다. 이번 **광주, 전남 불교 보리 살타 합창단(백양사, 향림사, 증심사, 사암연합, 한마음선원)**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국악 반주에 맞추어(**탄생, 고독, 유관, 출가, 고행, 항마, 선정, 성도, 전법 열반**)까지 불교음악 대서사곡 **"붓다"**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무대에 올립니다. 불음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하셔서 다함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45년 4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호 합창



입장은 무료입니다

■ 출연자 : 광주, 전남불교보리살타연합합창단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중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특별출연
- 신광사합창단
- 정광중학교 합창단
- 일정스님 : 독창
- 무연스님 : 독창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주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광주, 전남불교보리살타연합합창단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중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 협찬 : BBS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광주 · 전남지사

회 공연일시 : 2001년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회 공연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전화 062) 375-9986